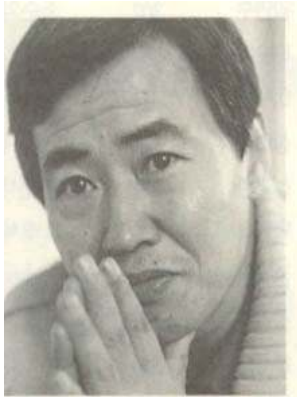
제11강 윤흥길『장마』

(1교시)

윤흥길 『장마』



1. 작가연보

1942년 전북 정읍 출생
1968년 「회색 면류관의 계절」로 한국일보 신춘문예 당선
1973년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1977년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로 제4회 한국문학 작가상 수상
1983년 『꿈꾸는 자의 나성』으로 제15회 한국창작문학상 수상
2000년 『산불』로 제6회 21세기문학상 수상
2000년 현재 한서대 문예창작과 교수
연작소설집『소라단 가는 길』로 제12회 대산문학상 소설부문 수상
주요 소설집 『황혼의 집』『묵시의 바다』『환상의 날개』『무지개는 언제 뜨는가』『순은의 넋』『에미』『완장』『백치의 달』『돛대도 아니 달고』등

2. 작품의 경향 및 특징

윤흥길이 문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73년에 발표한『장마』를 통해서이다. 이 작품은 6.25전쟁 중에 일어난 한 가정의 비극적 상황과 그 극복 과정을 그렸다. 이데올로기적 갈등으로 인해 발발한 동족상잔의 비극적 전쟁이 동질성을 가진 한 가정마저도 반목과 질시로 상호 갈등하게 만듦을 보여주고 있다.

3. 갈래

중편소설, 전후소설

4. 작품 배경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6.25 동란 중의 한 농촌 마을

5.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6. 문체
과거회상 수법으로 사실적이다. 전라도 사투리의 사용으로 사실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7. 플롯구조
회상 → 현재

8. 사건구조
이념의 대립과 갈등 - 당사자들에 의해 직접 표면화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간접화된다.

갈등의 해소와 화해 - 우리 민족의 전통적 정서의 화합. 이 작품은 이데올로기 대립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의 하나로서 민족적 보편 정서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9. 문예사조
사실주의

10. 제목의 상징성
계절적 배경 '장마'가 주는 상징 → 우리 민족에게 닥쳐온 '전쟁'이라는 불행한 사건을 뜻함.

11. 성격
샤머니즘적, 상징적, 사실적, 토속적

12. 민간 신앙적 성격
구렁이를 삼촌의 변신이라 여김. 구렁이는 갈등 해소의 정점에 놓인 상관물이다. 민속 신앙에서 구렁이는 지킴이, 즉 터주로 상징화되어 왔기 때문에 꺼리는 대상이 아니라 외경시되는 존재이다.

13. 주제
전쟁 와중에 빚어진 한 가족의 비극을 민족의 보편적 정서로 극복
→ 화해의 과정을 통한 분단 현실의 극복

14. 줄거리
육군 소위로 있던 외삼촌의 전사통지서를 받고 외할머니는 빨치산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다. 이에 빨치산에 나가 있는 자신의 아들을 염려하는 친할머니와 다투게 된다. 가족들은 할머니의 아들, 곧 삼촌이 죽었을 거라 예상하지만 할머니는 점쟁이의 예언을 믿고 아들을 맞을 준비를 한다. 하지만 삼촌은 돌아오지 않고, 구렁이가 출현하자 할머니는 졸도하고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내보낸다. 그 후 할머니는 외할머니와 화해하게 되고 일주일 후 숨을 거둔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다.

≪1장≫
1) 장마가 시작됨 : 비에 대한 묘사 - 비는 분말처럼 몽근 알갱이가 되고, 때로는 금방 보꾹이라도 뚫고 쏟아져 내릴 듯한 두려움의 결정체들이 되어 수시로 변덕을 부리면서 칠흑의 밤을 온통 물걸레처럼 질펀히 적시고 있었다. (p.7)

2) **외할머니의 꿈 → 외삼촌의 죽음**
<꿈의 내용>
이가 거의 빠져 합죽해진 입두덩을 끊임없이 달싹이면서 자기 신변으로 밀려오는 어떤 불길한 기운이 있음을 거듭거듭 예언하는 것이었다. 위아래를 통틀어 겨우 일곱 개밖에 남지 않았는데, 난데없이 무쇠로 만든 커다란 족집게가 안으로 쑥 들어오더니 기중 실하게 붙어 있던 이빨 하나를 우지끈 잦뜨려놓고 달아나는 꿈을 꾸었다는 것이다. (p.10)

<꿈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
화자인 나 : 또 그놈의 꿈 얘기. 물리지도 않나 보다. (p.10) → 외할머니란 사람이 별안간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p.17) → 노인다운 끈기와 옹고집에 충분한 여력이 있는 듯이 보였고, 그것이 외손자인 내게는 감히 누구도 범접 못할 불가사의한 힘으로 느껴져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강렬한 감동을 주었다.

어머니와 이모 : "모든 게 날씨 탓이지요. 어머님이 그렇게 괜한 걱정을 하시는 것도 날씨 탓이에요."(p.8) → 시간이 지날수록 외할머니의 말씨는 주술에라도 걸린 듯이 더욱 암시적이 되고, 어딘지 모르게 자신만만한 표정을 띠기조차 했다. 반면에 어머니와 이모는 까닭없이 안절부절못하면서 일껏 까려고 가져다 놓은 완두 줄거리를 우두커니 내려다보기만 했다. (p.11)

<꿈을 절대적으로 믿는 외할머니>
"어디 내 말이 틀리능가 봐라" (p.8) → "나사 뭐 암시랑토 않다." (p.13) → (화자가 본 외할머니의 변화된 모습) 시선을 떨군 채 일에 열중해 있는 그 모습은 여전했으나 우리가 밖에 나갔다 온 뒤부터 줄곧 외할머니는 강마른 두 팔을 가늘게 떨고 있었다. 그리고 일껏 까낸 연두빛 싱싱한 자실을 빈 까지가 수북이 담긴 치마폭 속에 아무렇지도 않게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p.15) → "이날 입때까장 내 꿈은 틀린 적이 없었니라. 무신 일이 생길 적마동이 에미가 꾸는 꿈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니라"(흥분, 희열) (p.17)

3) 시대적 정보제공 : 전쟁이 북으로 물러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빨치산들이 읍내 경찰서를 습격하고 불을 지를 만큼 어수선한 때였다. (p.12)

≪2장≫
1) 건지산
- 이념이 없는 아이, 화자가 본 건지산의 모습 : 밤이면 어른들이 거기 모여 불장난을 한다. 어른들 놀이치고는 너무 유치하고 어리석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아주 평화스럽게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보이는 장난이었다. (p.19) → 화자의 회상 : 봉홧불과 무수한 살상과의 상관관계를 나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
- 건지산 허리 윗부분이 검은 구름으로 친친 감겨 있었다. (p.20) → 앞으로 닥쳐올 불운 암시. 여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비를 새롭게 장만하고 있음을 얼른 알 수 있었다.

2) 먼먼 옛날로부터 오늘을 향해 부는 바람에 묻어오는 냄새와 치마 스치는 소리로 구별되는 외할머니–눈을 감고 있어도 외할머니의 발소리는 다른 사람과 확연히 구별되었다. (p.20) → 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함. (암시적)

<외할머니에 대한 나의 태도>
- 외할머니의 강마른 손이 내 아랫도리를 벗기기 시작했다. "즈이 오삼춘 타겨서 붕알도 꼭 왜솔방울맹키로 생겼지." (p.21) → 외가가 우리 집으로 피난 오면서부터 시작된 그것은 내겐 크나큰 고역이요 굉장히 모욕적인 장난이기도 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 = 울며 겨자 먹기) → 외할머니란 사람이 전에 없이 두렵게 느껴지기 시작한 뒤부터 내게는 자주 잠든 시늉을 하는 버릇이 생겼다.

3) **할머니와 외할머니 간의 불화**
-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할머니와 외할머니 간의 불화였다. 외삼촌과 이모를 공부시키기 위해 살림을 정리해서 서울로 떠났던 외가가 어느 날 보퉁이를 꾸려들고 느닷없이 우리들 눈앞에 나타났을 때, 사랑채를 비우고 같이 지내기를 먼저 권한 사람은 할머니였다. 난리가 끝나는 날까지 늙은이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자는 말을 여러 번 들을 수 있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사돈댁은 사실 말다툼 한번 없이 의좋게 지내왔었다. 수복이 되어 완장을 두르고 설치던 **삼촌이 인민군을 따라 어디론지 쫓겨 가 버리고** 그때까지 대밭 속에 굴을 파고 숨어 **의용군을 피하던 외삼촌이 국군에 입대하게 되어** 양쪽에 다 각기 입장을 달리하는 근심거리가 생긴 뒤로도 겉에 두드러진 변화는 없었다. (p.23) → 작품의 **발단** 제시 → 작품의 시작부터 **전개** 진행 - 외삼촌의 죽음

▲ 불화의 원인
① 내가 낯모르는 사람의 꼬임에 빠져 과자를 얻어먹은 일로 할머니의 분노를 사면서부터였다.
② 전사통지서를 받은 그 이튿날 사건 : **외할머니는 더욱 기가 나서 빨치산이 득실거린다는 건지산에 대고 자꾸 저주를 쏟았다. → 위기**

→ 외할머니의 말 한 마디가 집안에 던진 파문은 의외로 심각했다. 외할머니의 입에서 <뿔갱이>란 말이 엉겁결에 튀어나왔을 때 식구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넋을 잃은 표정들이었다. 너무도 놀란 나머지 숨소리조차 제대로 못 내면서 오직 느릿느릿 변화하는 외할머니의 동작만을 시종일관 주목할 따름이었다. 여태까지 삼촌 때문에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치안대와 경찰로부터 시달림을 당해 오면서 가족들 간에 절대로 써서는 안 될 말로 묵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금기는 연주창에 새우젓을 가리듯이 아주 철저하게 지켜져 왔었다. 그런데 이토록 무서운 말을 함부로 입 밖에 쏟다니. 외할머니의 과오는 어떤 변명으로도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것이었고 그래서 가족들의 놀라움은 이루 형언할 수 없었던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것이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놀란 사람은 다름 아닌 발설 당자였다. 외할머니는 구태여 변명을 늘어놓진 않았다. 변명해봤자 소용도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할머니가 무슨 못 들을 소리를 해도 꾹 참고 견디는 것으로 **자신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고 있었다. 할머니의 분노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길길이 뛰다가 거품을 물고 까무러칠 지경이었다. 그리고 외할머니와 이모를, 경우에 따라서는 어머니까지도 내보낼 것을 아버지한테 거듭 다짐받으려 했다. (p.27)
→ 완두를 까는 것만이 죽는 날까지 자기가 맡은 유일한 일이라는 듯 대바구니를 앞에 하고 외할머니는 끊임없이 손을 놀리고 있었다. (p.28)

(2교시)

≪3장≫
1) 형사와 나의 만남
- 그때 나이의 내겐 어른들에 의해서 기록된 최초의 치명적인 배신 → 아버지는 꼬박 일주일 만에야 풀려 나왔다. → 나와 외할머니 사이엔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잘못을 저지른 자들끼리 갖는 공통의 비밀이 생성됨 (p.43)
- 형사의 물음 - “삼촌이 집에 다녀갔었지? 그게 언제지?” (p.31)
- 나의 대답 - 액자소설의 형식을 갖춤 (p.32~42)
- 삼촌의 목소리 묘사 - 유감이지만 삼촌의 목소리는 내가 첫 귀에 거의 못 알아들을 만큼 무섭게 변모해 있었다. 자갈바탕에 함부로 굴린 질항아리처럼 그렇게 거칠 수가 없었고, 어떤 일에도 신명이 안 난다는 투의 그런 무심한 음색이었다. (p.34)
- 말이 아주 청산유수였다. 삼촌의 변모(우격다짐→차분한 설교조의 말씨)를 또 한 번 실감할 수가 있었다. / 삼촌은 얼굴이 온통 수염투성이였다. (p.38)
- 삼촌은 결국 자수를 하기로 결심했다. (p.40)
- 외할머니의 발소리로 산통이 깨짐. (p.42)

2) 회상하는 화자를 발견 - 아아, 그때 우리 아버지가 미친 듯이 매를 휘둘러 줬더라면 마지막 말을 남기며 나는 얼마나 행복한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었을 것인가.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p.44)

≪4장≫
- 세상이 온통 물바다요 수렁 속이었다. - 이웃이 전해주는 소식 : 경찰서 부근 인가들이 많이 상했고, 먼저 공격한 빨치산 쪽이 되레 혼구멍이 나게 당해서 목숨을 살려 산으로 도망친 숫자가 불과 몇 명밖에 안 될 거라는 얘기였다. (p.45)

1) 아버지의 읍내행과 할머니의 억척스런 반대 - 할머니의 주장은 아주 단순했다. 읍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든 삼촌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다. / 점쟁이를 소개한 고모를 통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해서 삼촌이 집에 다시 돌아오기로 되어 있다는 <아무 날 아무 시>를 받음. → 경찰서 뒤뜰에서 시체를 못 봤다는 사실이 결과적으로 삼촌의 생존을 의미하는 것 - 할머니가 가진 소박한 신앙과 모성애가 우리 모두의 가슴 구석구석을 뜨겁게 적시는 감동의 순간이었다. (p.46)

2) 외할머니와 완두 - 전적으로 외할머니의 책임. 어찌 된 영문인지 완두에 관한 일이라면 식구들은 무조건 외할머니 혼자 떠맡은 것으로 치부해 버렸다. 그리고 외할머니 자신도 응당 그래야만 된다는 듯 눈곱만치도 싫은 내색 않고 그 깨끗잖은 일감을 자기 유일의 소일거리로 삼았다. 아니다. 남이 행여 손을 댈까봐 당신 혼자 한시도 쉬지 않고 오직 그것만 붙잡고 늘어지기 때문에 모두들 양보를 해버린 선의의 결과라고 해야 이야기가 더 정확해 지겠다. (p.50)

3) "오삼춘이 존냐, 친삼춘이 존냐?" - 외할머니의 물음 : 무심히 흘리는 듯한 그 질문이 실은 자기 자신의 긴 얘기를 꺼내기 위한 막연한 서두임을 나는 벌써부터 깨닫고 있었다. (p.51)

▲ 외삼촌과 삼촌의 비교 - 화자의 관점
- 외삼촌 : 한마디로, 그는 멋쟁이였다. 친근한 정이기보다 차라리 존경심 쪽이었다. 한 인간의 내부에 공존하는 갖가지 이질적인 능력의 신기한 배합이 내게는 언제나 수수께끼였다.
- 삼촌 : 외삼촌보다 세 살 위임에도 하는 짓들이 어떻게 보면 영락없는 어린애였다.

→ 두 사람의 성격은 아주 대조적이었다. 삼촌의 부역 행위가 술김에 최 주사네 담을 넘는 거와 한 가지 경우로 어떤 외부적 자극이 타고난 맹목성을 부채질하여 자기도 모르게 휩쓸려 들어간 시간의 소용돌이 속에서 마냥 흥청거려 본 것이라면, 외삼촌의 우익 활동이나 그 후의 장교 후보생 자원은 움직일 수 없는 주의주장 밑에 치밀한 계산과 검토를 거쳐 이루어진 결과였다. (p.55)

4) 외삼촌과 삼촌의 관계 - 붉은 완장을 차는 건 못 배우고 가난하게 큰 자기 같은 사람이나 할 짓이라고 말하면서 삼촌은 세 살이나 아래인 외삼촌을 존경하고 대우했다. → 결국 외삼촌의 예감은 적중했다. 그렇게나 정이 두터운 것 같던 삼촌도 끝내는 인공 치하가 물러가던 저 광란의 날 새벽에 사람들을 시켜 땅굴을 덮치게 했다. (p.56)

≪5장≫
- 할머니의 신앙적인 믿음 - 삼촌을 기다림(p.62)
↕ 할머니와 나의 대조적 반응
- 정말이지 나는 하루 앞으로 닥쳐온 그 <아무 날 아무 시>가 견딜 수 없이 두려웠다. (p.63)

1) "구렁이 우는 소리다" - 병 주둥이를 입에 대고 아이들이 흔히 장난으로 부는 소리를 듣고 있는 기분이라고나 할까, 먼 바다에서 울리는 뱃고동처럼 그것은 매우 은은하게 들렸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애매한 소리여서 출처가 어디쯤인지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다. 어떻게 생각하면 방문 바로 건너 우리 집 텃밭 속이 분명했다. 밤의 고요 속을 뚫고 은은히 건너오는 이상한 소리. 그 소리에 나는 정말로 홀림을 당하고 있었다. 도깨비불에 넋을 덜미 잡혀 밤새껏 공동묘지를 헤맸다는 어떤 아이처럼 은은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을 만큼 음산함이 풍겨지는 그 소리의 신비스런 가락에 이끌려 내 마음은 어느새 강언덕으로 줄달음치고 있었다. (p.56)

2) 외할머니의 변명 - "아니다. 그날 저녁 일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 누구를 해꼬지헐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소피를 보러 나갔다가 안채에 불이 훤하고 밤중에 두러두런 얘깃소리가 들리걸래 대처나 무슨 일인가 싶어서 찌꼼 구다본 것뿐이다. 일판이 그렇게 꼴 종 누가 알었냐? 내가 미쳤다고 그런 자리에 갔겄냐. 허기사 늙은이가 눈치코치도 없이 사둔네 일에 해자를 논 게 잘못은 잘못이지. 잘헌 일은 아니여. 잘헌 일은 아니지만, 그런다고 이 외할매만을 탓혀서는 못쓴다. 그날 저녁에 내가 아녔드라도 느네 삼촌은 오던 질을 되짚어서 도로 떠날 사람이었어. 팔자를 그렇게 타고난 거여." (p.69)

≪6장≫
1) **구렁이의 출현** - 돌맹이가 날아와 푹 꽂히는 땅바닥에서 나는 끝내 못 볼 것을 보고야 말았다. 꿈틀꿈틀 기어오는 기다란 것이 거기에 있었다. 눈어림으로만도 사람 키보다 훨씬 큰 한 마리의 구렁이였다. 꿈틀거림에 따라 누런 비늘가죽이 이리저리 번들거리는 그 끔찍스런 몸뚱어리를 보고는 순간, 그것의 울음소리를 듣던 간밤의 기억이 얼핏 되살아나면서 오금쟁이가 대번에 뻣뻣이 굳어져버렸다. (p.74)
→할머니의 졸도

2) 구렁이를 배웅 - "자네 오면 줄라고 노친께서 여러 날 들여 장만헌 것일세. 먹지는 못헐망정 눈요구라고 허고 가소. 다아 자네 노친 정성 아닌가. 내가 자네를 쫓을라고 이러는 건 아니네. 그것만은 자네도 알어야 되네. 냄새가 나드라도 너무 섭섭타 생각 말고, 집안 일일랑 아모 걱정 말고 머언 걸음 부데 펜안히 가소."(p.77) - 외할머니의 침착한 태도.
→ 할머니와 외할머니 간의 화해와 용서
→ 할머니의 임종

3) 장마가 끝나가는 시기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p.81)
장마라고 표현된 동족상잔의 비극성의 시간과 그를 통해 가족과 민족이 분열하는 아픔이 너무 오래 지속되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회상)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